2014 광주은성교회 대학청년부

비전트립 보고서

o 기 간 : 2014년7월8일~18일, 10박11일간
o 국 가 :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2014년 광주은성교회 비전트립

<목차>

개요 ····· 3
오리엔테이션 ····· 4
예산안 ····· 5
일정표 ····· 6
주의사항 ····· 8
지역정보 ····· 13
선교지 회화 ····· 16
매일의 묵상 ····· 19
간증 ····· 28
사진 ····· 41

* 개 요

o 목 적 :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한다.
o 주 제 :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16:9)
o 기 간 : 2014년7월8일(월)~18일(금) 10박11일 예정
o 방문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o 참여인원 : 12명
o 인 솔 자 : 김신권 강도사
o 예상비용 : 1인 약 160만원

o 준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주차	7월 2주차	7월 3주차
단기선교팀 모집		←	—	→					
각 팀별 팀장 구성				←	—	→			
정기 모임					←	—	—	→	
매일 정기기도회							↔		
선교 훈련					←	—	—	→	
여권 및 비자 준비					←	—	→		
티켓팅						←	—	→	
핸드북 제작						←	—	→	
최종 점검 및 확인							↔		
단기 선교								←	→

o 비전트립팀 정기 모임
◦ 토요일 오후 5시 ~ 8시
대학청년부 기도회, 성경공부, 선교리서치, 프로그램 연습
◦ 주일 저녁 3시30분 ~ 5시30분
기도회 및 프로그램 점검

* 목 표

① 잃어버린 영혼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
② 선교현장과 선교사의 사역을 이해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는다.
③ 교회, 학교, 단체 방문과 선교공연으로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위로하며 사랑의 기쁨을 나눈다.
④ 방문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의 이해와 체험을 통한 전문인 선교 전략을 모색한다.
⑤ 이슬람의 문화, 현장체험을 통해 세계를 향한 도전의식을 고취한다.

* Orientation

인솔 : 이성진 목사
진행 : 김신권 강도사
팀원 : 이미정, 정란희, 안주완, 김다영, 강혜인, 공보영, 박지영, 조효로, 김지수, 최우성

♣ 팀편성

팀명	팀장	팀 원
찬양팀	안주완	정란희, 박지영, 최우성
놀이사역팀		김지수, 최우성, 조효로
풍선아트팀		정란희, 안주완, 김지수, 이미정, 최우성
워십팀	정란희	강혜인, 공보영, 박지영, 최우성
무언극팀		김다영, 정란희, 최우성, 이미정, 김지수, 조효로
환경미화팀		이미정, 김다영, 강혜인, 박지영, 공보영, 안주완
페이스페인팅팀	김다영	김다영, 강혜인, 박지영
네일아트팀	공보영	조효로

♣ 말레이시아 선교지 소개

선교사 : 정OO 선교사
선교지 : 숭아이가삐스, 바랏떼, 바투 숨빌란, 은치압, 스마와 등 원주민 마을
선교전략 : 5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OTM이라는 팀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고 있음.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지역교회를 현지 목회자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부족한 교회가 태반임.
팀에 전달된 요청 사항 : 집회 사역(설교, 워십, 무언극), 1일 어린이 성경학교, 선교원 개원 준비(페인트,
환경미화, 벽화 작업), 어린이 문화 사역, 어린이 장난감 지원 및 원주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약품 지원

* 예산안

① 수입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대학청년부	선교적립금	3,300,000	2013년 선교적립금
개인	개인 회비	14,400,000	1,200,000 x 12명 (교역자 단기선교 지원금 150만원 포함)
기타	후원금	1,800,000	
	여행배낭 공동구매	500,000	10명
합 계		**20,000,000**	

② 지출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교통비	항공: 케세이패시픽	6,209,400	인천-홍콩(경유)-쿠알라룸푸르 (왕복)
	항공: 에어아시아	1,285,519	싱가폴-쿠칭
	항공: 에어아시아	819,337	쿠칭-쿠알라룸푸르
	버스: 공항 리무진	813,600	광주-인천공항 (왕복)
해외	말레이시아(K.L)	3,500,000	인솔: 정OO 선교사
	싱가폴	2,060,000	
	말레이시아(쿠칭)	2,200,000	
	홍콩	800,000	홍콩 대기시간 7h30m
국내	식대	200,000	출국일, 입국일 조식
	공동물품	400,000	팀복, 사역준비물, 상비약, 모기퇴치제, 라면
	선교사님 사례	1,000,000	
	여행자보험	100,000	12명(7.7~18) 동부화재
	배낭 구매	500,000	
	예비비	112,144	
합 계		**20,000,000**	

* 일정

일정

시간 날짜	오전	오후	저녁	비고
7일 (월)			**19:00 교회 집결 22:30 교회 출발**	
8일 (화)	**12:30 인천공항행 심야버스 탑승 04:30 공항 도착 06:00 출국 수속 08:50 홍콩행 탑승 11:30 홍콩 도착**	**12:50 K.L 행 탑승 16:40 K.L 도착 17:40 선교관 이동**	**18:00 저녁 식사 21:00 오티엠 선교관 21:30 오리엔테이션**	**석식 - 중국식 숙소 - OTM선교관 (이뽀 지역에 위치)**
9일 (수)	**06:00 기상, 새벽기도회 07:00 아침 식사 10:00 가삐스 선교원 환경미화**	**12:00 점심 식사 14:00 원주민교회 봉사활동 (페인트칠)**	**17:30 저녁 식사 19:30 저녁 집회**	**조식 - 쌀국수 중식 - 현지식 석식 - 공동식사 숙소 - 원주민교회**
10일 (목)	**06:00 기상, 새벽기도회 07:00 아침 식사 11:30 원주민 교회로 이동**	**13:00 점심 식사 15:00 버르땀교회 도착 어린이 1일 성경학교 사역 18:00 원주민 공동식사**	**18:30 저녁 식사 19:30 저녁 집회**	**조식 - 원주민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원주민식 숙소 - 원주민교회**
11일 (금)	**06:30 기상, 새벽기도회 07:30 아침 식사 10:00 바뚜 슴빌란 선교원 사역**	**12:00 점심 식사 14:00 라따낀짱 폭포 물놀이 16:00 두순 써라뚜스 마을 어린이 사역**	**18:30 저녁 식사 20:00 원주민 교회 저녁집회**	**조식 - 현지식 중식 - 현지식 석석 - 현지식 숙소 - OTM선교관**
12일 (토)	**06:00 기상, 새벽기도회 07:00 아침 식사 09:00 KL로 이동 11:00 윌라야 모스크 방문**	**12:30 점심 식사, KLCC트윈타워 국립박물관 바투케이브,**	**18:00 저녁 식사 차이나 타운 22:00 싱가폴행 버스탑승**	**조식 - 쌀국수 중식 - 자율식사 석식 - 한식**

시간 날짜	오전	오후	저녁	비고
13일 (주일)	08:00 아침 식사 10:00 City Harvest 교회 주일 예배	12:00 점심 식사 13:00 유니버셜 스튜디오 방문	18:00 저녁 식사 19:00 클라키 보트 22:00 숙소로 이동	조식 - 현지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숙소 - 호스텔
14일 (월)	06:00 기상, 새벽기 도회 07:00 아침식사 08:30 체크아웃, 공항으로 이동 11:00 쿠칭행 탑승	13:00 쿠칭 도착, 짐 정리 14:30 롱하우스로 이동 17:30 스마와 마을 도착	18:00 저녁 식사 20:00 저녁 집회 22:00 TEA 타임	조식 - 자율식사 중식 - 기내식 석식 - 공동식사
15일 (화)	06:00 기상, 새벽기도회 07:00 아침 식사 09:30 가가호호 심방/ 중보기도	12:00 점심 식사 13:00 롱보트로 이동 14:30 은치압마을 도착, 티 타임 15:00 마을 둘러보기	18:00 저녁 식사 20:00 저녁 집회 22:00 TEA 타임	조식 - 원주민식 중식 - 공동식사 석식 - 공동식사
16일 (수)	06:00 기상, 새벽기도회 07:00 아침 식사 08:00 쿠칭으로 이동	12:00 쿠칭도착, 점심 식사, 농장 둘러보기, 쿠칭 둘러보기	18:00 저녁 식사 19:30 현지교회 수요예배 참석 22:00 비전트립 평가회	조식 - 원주민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17일 (목)	04:30 기상, 새벽기도회 05:30 공항으로 이동 06:00 체크인 07:00 KL행 탑승 08:45 KL 도착 11:00 체크인	13:00 홍콩행 탑승 17:25 경유지 홍콩 도착 및 입국 심사	18:00 셔틀버스 탑승, 구룡반도로 19:00 구룡반도 도착 및 저녁식사 20:00 침사추이 시내탐방, 심포니 오브 라이트 관람 22:00 AEL 탑승 22:30 공항 도착, 출국 심사	조식 - 기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 현지식 -구룡역에서 공항까지 AEL 이용 (약 25분 소요)
18일 (금)	01:00 인천행 탑승 05:35 인천도착 06:30 조식 08:20 광주행 버스 탑승	12:00 유스퀘어 도착 12:30 점심식사 13:00 집으로		조식 - 자율식사 중식 - 자율식사

항공 스케줄

날짜	편명	출발		도착	
7/8(화)	CX415 (캐세이패시픽)	08:50	인천	11:30	홍콩
7/8(화)	CX725 (캐세이패시픽)	12:50	홍콩	16:40	쿠알라룸푸르
7/14(월)	AK774 (에어아시아)	11:45	싱가폴	13:15	쿠칭
7/17(목)	AK5231 (에어아시아)	07:00	쿠칭	08:45	쿠알라룸푸르
7/17(목)	CX722 (캐세이패시픽)	13:30	쿠알라룸푸르	17:25	홍콩
7/18(금)	CX412 (캐세이패시픽)	01:00	홍콩	05:35	인천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영적인 준비

1.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살아있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적인 성장이 있도록 노력 할 것.
2. 스스로 영적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것.(선교훈련, 말씀공부, 기도회 참석 등)
3.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선교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것
4.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을 것. (기도의 동역자들은 보이지 않게 함께 가는 팀원들임을 명심 할 것)
5. 날마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경험들이 선교의 훈련이며 선교자체라고 생각하기

복장준비

복장에 대한 개념은 각 나라 또는 지역마다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된 나라가 저개발국 보다, 시골보다는 도시일수록 복장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또한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저개발국의 시골 지역일수록 서구식의 복장은 거리감이 있다. 남자 여자의 복장에도 엄격한 거리가 있기도 하다. 예로 아프리카에서는 대체로 여자는 바지를 입지 않는다. 다리가 나오는 반바지는 더더욱 금기이다. 몸의 곡선이 보이는 옷들은 대체로 좋지 않다고 보면 무방하다. 모자를 쓰는 것도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팀은 반드시 선교지에 가기 전에 현지에서의 복장에 대해 철저히 알고 준비를 하고 가야하며 팀원들은 반드시 복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현지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이질감과 거부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여자는 몸에 달라붙는 옷들과 신체의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한다. 여자들은 대개 통치마를 준비하면 어느 문화에도 어울릴 것이다.
2. 값이 싸건 비싸건 모든 장신구, 악세사리는 착용하지 않는다.
3. 옷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수수하며 옷을 입는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때로는 먼지와 맨땅 위에도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옷을 입는다.
4. 이름이 있는 유명상표의 옷, 신발, 핸드백 등은 피한다.
5. 현지의 선교단체나 선교사가 원하는 복장을 준비해간다.

집에 놔두고 갈 것

1. 보석류.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등
2. 가죽옷이나 비싼 옷들 또는 강한 태양 빛에 색이 바랠 수 있는 옷들
3. 워크맨 또는 라디오등
4. 크래딧 카드, ATM 카드등 분실할 수 있는 카드종류들

짐 가방 준비

여행사마다 짐의 무게를 허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 탈 경우 국제선에서 허용했던 가방무게 보다 국내선의 가방무게는 적게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미리 알아서 가방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일이다. 선교팀의 짐은 사역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선교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나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과 현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생활 물품들은 현지 선교사에게 부탁해서 구입해도 된다. 그러나 가격을 미리 알아보고 이곳에서 사는 것이 선교비를 절약 할 수 있는지 알아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 약품 등은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되며 현지에 있는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가정으로 갈 때에는 출발전에 미리 필요하거나 현지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1. 단체일 경우에는 짐가방에 번호를 표시하고 번호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 따로 가지고 있는다.
2. 물건이 깨지거나 상할 것 같은 물건이 있으면 미리 "주의" 표시를 가방에 단다.
3. 목록과 번호를 copy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다.
4. 선교팀의 가방들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매달아 구별되게 한다.

여행 중 안전에 대해서

1. 여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
2.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보호자임을 명심하라.
3. 돈지갑은 목걸이 지갑으로 티셔츠 안으로 걸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라.
4. 여자는 외출용 핸드백(Purse)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5. 언제든지 여권을 조심하라. 특히 미국여권은 세계적으로 소매치기의 표적의 대상이다.

여행 중 하루를 중간에서 자고 갈 때

1. 자신의 방 번호를 팀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하라.
2. 방문은 반드시 잠그고 있는다.
3. 방문을 누군가 노크 할 때에 분명히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는 문여는 것을 조심하라.
4. 방을 청소하거나 고치로 온 사람이 있을 때에는 호텔 관리부에 먼저 알아보기 전에는 허락하지 마라.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1. 혼자 다니지 말라. 동료와 함께 가고 또한 리더에게 반드시 알리고 행선지와 돌아오는 시간을 알리라.
2. 많은 액수의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3. 사람이 적은 한적한 곳이나 골목 같은 으슥한 곳은 피하라.
4.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방심하지 마라.
5. 달러는 비싸게 바꿔 준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기타 주의사항들

1.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또한 현지인들에게 잠시 들고 있으라는 부탁을 하는 유혹을 주지 마라.
2. 돈을 보여주지 마라.
3. 리더의 지시에 절대로 순종하라.
4. 개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팀에서 떨어지지 마라.
5. 전도집회나 교회의 집회 중에도 자신의 물건이나 팀의 물건들을 조심하라.
6. 현지인에게 절대로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주지 마라.

공항에서의 주의점

1. 잠시라도 물건을 보는 사람 없이 나두지 마라.
2. 공항에서 선교팀외에는 어느 누구의 부탁이라도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검색대를 통과하지 마라. 마약운반에 이용당할 수 있으며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3. 주인 없는 짐을 절대로 만지지 마라. 경찰의 함정일 수도 있다.
4. 400 이상의 사진필름은 X-ray를 통과하면 손상을 입는다.
5. 비행기를 탈 때는 편한 신발과 편한 옷을 입는다.
6. 비행기안은 약간 추울 수 있다. 미리 필요한 옷을 준비하면 좋다.
7. 기내에서 옆 사람을 위해서 향수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8. 선교지의 입국 카드에 방문 목적을 관광이라고 적고 현지 선교사의 신분을 보호한다.

현지 공항 도착시에 주의점

1. 세관 통관이 어려운 관문의 하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라.
2. 현지 공항의 이민국 직원과 세관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라.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절대로 위험한 일이다.
3. 세관 통과 시 세관원의 고압적인 자세에 화내지 말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하라.
4. 작은 종류의 뇌물 정도는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타협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세관원이 물건값을 말하라고 할 때에 영수증을 보여주지 말라. 만약에 물건이 압류를 당 하면 그냥 나오고 선교사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공항 안에서도 물건들은 끝까지 조심하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물건을 도난 당할 수 있다.
7. 자신의 짐을 짐꾼들에게 가능하면 맡기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어쩔 수 없어서 맡길 때 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 맡기라.

식수와 음식에 대해서

음식은 믿음으로 먹고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지만 의심이 가고 믿음이 없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단기선교는 기간이 짧은 사역인데 음식으로 배탈이 나면 선교를 못하고 돌아 올 수도 있다.

1. 현지에서 가능하면 생수를 사서 마시고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며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이 안전하다. 얼음은 안전하지 못하며 물이 없을 때에는 콜라 등을 사서 마시면 안전하다.
2.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고 식사한다.
3. 상추종류의 야채는 깨끗이 여러번 세척하고 살균제를 첨가하여 씨는 것이 안전하다.
4. 식당에서 식사 할 때에 완전히 익지 않는 고기나 생선은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
5. 길거리의 노점서 파는 음식은 절대로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6. 생선류를 조심하라.

현지 사역에서의 팀웍

1. 현지 사역 스케줄에 따라라.
2.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
3.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방식으로 일하도록 존중하라. 만약에 자신이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라.
4. 팀의 리더의 말을 들어라. 영향력 있는 다른 팀원의 의견을 따르지 마라.

선교지에서의 수칙

1. 선교여행이 경비에 비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불만의 유혹을 이겨라. 선교의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2. 선교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라. 자신이 알고있는 사실은 전체에서 하나의 부분 인 것을 알아라.
3. 다른 팀원들을 바꾸려고 하지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서 일하라.
4.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5. 다른 팀원들에게 인내와 사랑과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팀원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Bonding" "하나되는 일"은 팀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며 우리 공동의 일들과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 할 때에 가능하다.

1.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라.
2. 불평불만을 피하라.
3. 남의 대한 뒷말을 피하라.
4. 지나친 농담과 성적인 주제를 피하라.
5. 인종적인 농담을 피하라.
6. 현지 문화를 주제로 한 농담을 피하라.

선교사에 대해서

팀원들이 가지기 쉬운 선교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1. 선교사 조사관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러 온 것 같은 착각을 가진 사람
2. 선교사에 대해 환상을 가진 사람
   선교사에 대한 영웅적인 환상으로 선교사를 보는 사람.
3. 선교사가 선교지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4. 선교사는 고생하는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선교사는 고생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온 것이 주목적임.
5. 선교사는 하루 종일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선교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야 할 것들

1. 선교사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가져라.
2. 선교사를 한 인간으로 전문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라.
3. 선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부르심이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4. 선교사의 영성에 대한 판단을 피하라.
5. 선교사의 시간 사용이 팀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6. 선교사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기쁨, 고통, 필요, 관심등을 들어라.

7. 선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강요 말라.
8. 선교사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라.

귀국 후에 팀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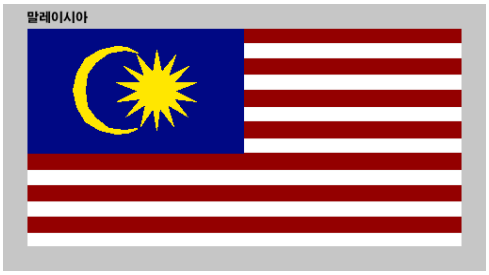
1.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2. 선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영적이라고 생각을 마라.
3. 선교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4. 선교보고 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이해 못한다고 실망 말라.

선교보고시 함께 나눌 부분들

1. 선교 여행 중에 특이했던 일들, 팀원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현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새로 발견한 것, 배운 것들.
2. 선교를 통해서 새롭게 가치를 발견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삶의 우선권의 변화에 대해서.
3. 앞으로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 할 것인지에 대해서.
4.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 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5. 실망한 것들에 대해서.
6. 선교여행 중에 기뻤던 일들에 대해서.
7. 자신의 다른 선교계획 또는 참여에 대해서.
8.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 국가개요

말레이시아(Malaysia)



공식명칭 : 말레이시아(Malaysia)
인구 : 28,500,000
면적 : 329,876 ㎢ (한반도의 1.5배)
수도 : 콸라룸푸르 (신 행정도시 : 뿌뜨라자야)
정체 · 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양원제
국가원수/정부수반 : 국왕/ 총리
독립일 : 1957년 8월 31일
언어 : 말레이어 (공용어 : 영어)
종교 :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화폐단위 : RM으로 표기하며 링깃[ringgit]이라 부름, 말레이시아 달러라고도 함
환율 : RM 1 = 약 300원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650km 떨어져 있는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이 반도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면적 13만 1,598㎢)는 길이 약 800km, 폭 325km이며 북쪽은 태국, 남쪽은 싱가포르, 서쪽은 말라카 해협, 동쪽은 남중국해를 경계로 한다. 보르네오 섬 북서부를 차지하는 동말레이시아(면적 19만 8,160㎢)는 길이 약 1,075km, 폭 384km로 사라왁 주와 사바 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소수부족 토착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정글 지대이고 복음이 일찍부터 들어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과 중국인들 그리고 인도 타밀인이 가장 큰 인종집단을 형성하며, 소수 종족으로는 100개 부족이 넘는 많은 토착민들이 있다. 공용어는 말레이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중국어와 인도 타밀어가 사용된다. 국교는 이슬람교이고 불교, 기독교, 힌두교 및 토착민들 사이에서 전통과 애니미즘이 있다.

1400년경 수마트라 추방자들이 도시국가 말라카를 세웠다. 말라카 왕국이 왕성해 지자 아랍 부호 상인들이 말라카 왕가와 정략 결혼을 하였고 이후 1511년 포르투갈인들에게 점령당하기 전까지 교역과 이슬람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1641년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점령했다. 1819년 영국은 싱가포르 섬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1867년 해협식민지(말라카, 싱가포르, 페낭 섬)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중국인들이 말레이 반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41년에는 일본이 말라야를 침공하고 1942년에는 싱가포르를 점령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말라야·싱가포르 및 영국의 이전 식민지들이면서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사라왁과 사바가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합류했다.

싱가폴(Singapore)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인 구 : 4,610,000명(2008년 기준)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기후, 년평균 26,6℃
면 적 : 692.7㎢
주요도시 : 도시국가
주요민족 : 중국계(Chinese), 말레이계(Malaysian), 인도계(Indian)
주요언어 : 영어(English), 말레이어(Malay Language), 중국어(Chinese), 타밀어(Tamil Language)
종 교 : 불교(53.3%), 회교(15.3%), 기독교(12.7%), 힌두교(3.7%)
화폐단위 : SGD. 싱가폴 달러
환율 : 1 SGD = 약 800원

'그린 & 크린 시티'로 불리우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폴은 14세기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Singa Pura, 사자의 도시)'로 불리워지다가 영국인들에의해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1832년에는 영국의 해협 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후 영국 식민지로 환원되었던 싱가폴은 1959년 영국 연방내 자치정부를 설립했으나,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야 비로소 독립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117번째로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싱가폴의 옛 명칭인 '테마섹(Temasek : 바다의 마을)'에 널리 알려진 전설속의 동물 '머라이언'은 1964년 싱가폴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 되어 관광청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젊은 나라인 싱가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싱가폴 강 입구에 위용을 뽐내고 있다.

지리

싱가폴은 본섬외에 50여개의 조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면적은 692.7㎢다. 북위 1.09-1.29도, 동경 103.38 - 104.06도에 위치하며,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백37km 떨어져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와는 동서를 잇는 유명한 해상 루트인 말라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조호 수로를 잇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항만 도시 국가이다. 싱가폴 본섬의 서남부는 암석지대로 저습지가 많고 동부지역은 모래가 많아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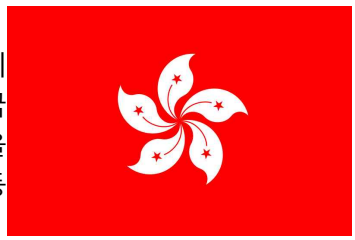
문화

싱가폴은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싱가폴 국민들은 자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는 물론 멀리 포르투칼까지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인구는 4백 35만명으로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이고, 종교는 불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고무, 주석, 코코넛, 석유, 목재, 쌀, 향료, 커피, 황마 등 각 종 산물의 거래시장으로 이 지역의 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관광도 주요산업으로 성장하여 하루 평균 1만4천여명의 관광객이 싱가폴을 찾고 있다.

기후

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섭씨 27-28℃로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강우량에 따라 다소 변화를 느낄 뿐이다. 연중 상하의 날씨로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동북 몬순 기후로 우기에 속한다. 우기라고는 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 소나기(스콜)가 오고 나면 곧 날씨가 갠다. 연중 기후는 맑고 고온 다습한 기후이지만 건물 안이나 공공시설은 에어컨 시설이 완벽해 오히려 얇은 가디건 같은 겉옷이 필요하다.

홍콩(Hong Kong)



역사

15세기 까지는 조그만 촌락과 어항이었으며, 해적의 근거지로서 별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미 13세기말에 마르코 폴로가 육로로 중국을 여행한 바 있고 16세기에 이르러 포르투갈인이 해로 탐험에 나서 중국을 발견하였다. 1557년에는 마카오를 개항하여 스페인, 화란, 영국, 프랑스 등 당시의 세계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 중국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특히 영국은 17세기 초에 인도를 점령하여 동인도 회사를 창설하고 마카오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무역에 역점을 두는 한편 대규모로 아편의 불법 무역을 하고 있었다. 세계 2차 대전 중 홍콩은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으나 대전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 대전 후 홍콩은 물가의 안전과 인플레 대책이 성공하여 타국으로 자본이 도입되었고 또한 중국 본토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인력도 많아졌으므로 홍콩은 이제 중계무역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도 가져왔고 더구나 년간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왕래하는 아시아 최대의 관광지가 되었다. 신계가 중국에 1997년 7월 1일 반환되었다.

위치 및 지세
홍콩은 중국 광동성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지나해에 떠있는 홍콩섬과 중국 대륙의 일부인 구룡반도, 그리고 조차지의 신계, 란 타우섬으로 형성되어 있다. 구룡시는 홍콩섬과 1.6km의 해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면적이 고작 11㎢이다. 여기에는 하늘의 현관인 개덕공항을 비롯하여 선박의 터미널이 있어 항상 활기에 차 있다. 구룡의 이름은 고대 중국에서 산에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880년전 옛날 황제가 구룡반도의 8개의 산을 보고 "여덟마리의 용이 있구나"하고 말슴하시자 수상이 " 아닙니다. 용은 아홉 마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이것은 중국의 황제도 용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구룡이란 아홉 마리의 용을 가리킨다.

신계는 구룡의 북쪽에서부터 중국 광동성 경계까지의 지역으로 1898년부터 99년 간의 기한으로 중국에서부터 조차한 곳이다. 인가가 드물게 있는 농촌지대이며 중앙에는 홍콩에서 최고봉인 대모산(해발 960m)이 솟아 있다. 이 지구의 면적은 959,9㎢로 구룡과 경계인 신계의 남부지구를 신구룡이라 부르며 신계 인구의 대부분이 여기에 살고 있다.

홍콩 섬, 구룡, 신계와 주변의 섬들을 합친 총 면적은 약 1,046㎢이며 우리나라의 울릉도 면적의 배반정도 된다.

기후
열대성으로 계절풍지역에 속해 있으며 기온이 15도를 내려 가는 일이 별로 없다. 위도상으로는 하와이와 거의 같으나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3월-5월이 봄, 6월-9월이 여름, 10-11월이 가을, 12-2월이 겨울에 해당한다. 봄의 온도가 평균 20도, 습도 84%로 서서히 온도와 습도가 상승한다. 대낮은 따뜻하나 밤에는 신선하며 비는 가끔온다.

문화
홍콩의 종합적인 문화는 홍콩 축제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마다 2월초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전개되는 세계 예술제이다. 음악 연극, 무용, 회화, 등에 관하여 동서의 제 일선에서 활약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는 축제는 홍콩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예술이 아니고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홍콩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콩을 보다 훌륭하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

사회
1) 인종, 인구 : 홍콩의 인구는 6,159,000명이다. 이중에는 약 10만명이 수상생활자가 있다. 총 인구의 약 99%가 중국인으로 광동인이다. 또한 복건과 상해계의 사람들도 많다. 홍콩에 사는 외국인으로는 미국인, 포르투갈인, 일본인, 필리핀인등으로 되어있다.

2) 생활 : 홍콩섬과 구룡은 땅이 좁고 평지가 많지 않으므로 해안에서부터 고층건물이 들어선 상업과 무역지대이다. 500만명이 넘는 인구의 거의가 중국인이며 더구나 광동성 출신이 많다. 같은 광동성 출신이라도 광동인 이외에 객가, 학노 사읍, 조주 등 소수의 민족이 있다.

언어
홍콩의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광동어)로 홍콩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일부는 두가지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소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는 호텔, 식당, 백화점, 기념품점 등 주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 또는 관광청이외에서는 그렇게 통용하지 않는다.

종교
무종교/기타 15.2%, 중국종교 66%, 신흥종교 3.6%, 기독교 14.1%

* 말레이시아 기초 회화

▶ 인 사 말

- Selamat pagi / 슬라맛 빠기 (아침) - Selamat siang / 슬라맛 씨앙 (점심)
- Selamat sore / 슬라맛 소레 (오후) - Selamat malam / 슬라맛 말람 (밤)
- Selamat tidur / 슬라맛 띠두르 (안녕히 주무세요)

▶ 안부인사

- Apa kabar / 아빠 까바르 - Apa kabarnya / 아빠 까바냐 (어떻게 지내세요?)
- Kabar baik / 까바르 바익 - Baik-baik saja / 바익바익 사자 (잘 지냅니다)

▶ 소개하기

- Siapa nama Anda? / 씨아빠 나마 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Nama saya OOO / 나마 싸야 OOO (나의 이름은 OOO입니다)
- Saya orang Korea / 싸야 오랑 꼬레아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 Saya senang bertemu dengan Anda / 싸야 쓰낭 쁘르뜨무 등안 안다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 헤어질 때

- Selamat jalan / 슬라맛 잘란 (안녕히 가세요)
- Selamat tanggal / 슬라맛 띵갈 (안녕히 계세요)
- Sampai bertemu lagi / 삼빠이 쁘르뚜무 라기 (다음에 또 만나요)
- Sampai besok / 삼빠이 베속 (내일 만나요)

▶ 음식먹을 때

- Selamat makan / 슬라맛 마깐 (맛있게 드세요)
- Sedap / 쓰답 (맛있네요)

▶ 감 사

- Terima Kasih (banyak) / 뜨리마 까시 (바냑) ((대단히)감사합니다)
- Kembali kasih / 끔발리 까시 - Sama-sama / 싸마싸마 (천만에요)

▶ 사 과

- Minta maaf / 민따 마아프 - Maaf / 마아프 (미안합니다)
- Tidak apa-apa / 띠닥 아빠아빠 (괜찮습니다)

▶ 기 타

- anak / 아낙 (아이) - nasi / 나씨 (밥)
- cantik / 짠띡 (예쁘다) - Tuhan / 뚜한 (하나님)
- Yuhan memberkati anda! / 뚜한 믐브르까띠 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 말레이어 찬양 가사

Ku Mau Cinta Yesus Sele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꾸 마우 찐따 예수쓰 슬라마냐 (영원히 예수 사랑하기 원해요)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꾸 마우 찐따 예수쓰 슬라마냐 (영원히 예수 사랑하기 원해요)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머쓰끼뿐 바다이 씰리 버르간띠 달람 히둡꾸
(폭풍이 잇따라 나의 삶에 닥처도)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꾸 떠땁 찐따 예수쓰 슬라마냐 (나 분명 예수 사랑할거예요 영원히)
Ya Bapa Bapa ini aku anakMu 야 바빠 바빠 이니 아꾸 아낙무
(아버지 나 이 사람은 당신의 자녀이오니)
Layakkanlah seluruh hidupku 라약깐라 썰루루 히둡꾸 (나의 온 삶을 합당하게 하소서)
Ya Bapa Bapa ini aku anakMu 야 바빠 바빠 이니 아꾸 아낙무 (아버지 나 이사람 당신의 자녀이오니)
Pakailah sesuai dengan rencanaMu 빠까일라 써쑤아이 등안 런짜나무
(당신의 계획에 합당하게 사용하소서)

Segala Puji Syukur

Segala puji syukur Hanya bagiMu Tuhan 쓰갈라 뿌지 슈꾸르 하냐 바기 무 뚜한
(모든 찬양과 감사 오직 주님께)
Sebab Kau Yang layak disembah 쓰밥 까우 양 라약 디썸바 (당신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Kami mau bersorak Tinggikan NamaMu 까미 마우 버쏘락 띵기깐 나마무
(소리외쳐 당신 이름 높이기 원해요)
Haleluyah 할렐루야 (할렐루야)

II: Soraklah Haleluyah 쏘락라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Soraklah Haleluyah 쏘락라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Haleluyah :II 할렐루야 (할렐루야)

Lingkupiku

1. Lingkupiku dengan sayapMu 링꾸삐꾸 등안 사얍무 (주품에 품으소서....)
Naungiku dengan kuasaMu 나웅이꾸 등안 꾸아사무 (능력으로 덮으소서)

2. Jiwaku tenang dalam Kristus 지와꾸 떠낭 달람 크리스투스 (내 영혼 그리스도안에 평안해)
Lihat kuasaNya dalam keheningan 리핫 꾸아사냐 달람 꺼허닝안 (고요함 안에서 그의 능력 보리라)

Disaat badai bergelora 디싸앗 바다이 버걸로라 (폭풍 가운데)
Kuakan terbang bersamaMu 꾸아깐 떠르방 버사마무 (당신과 함께 날아 오르리)

Bapa Kau Raja atas s'mesta 바빠 까우 라자 아따스 쓰머스따 (아버지 당신은 우주의 왕)
Kutenang s'bab Kau Allahku 꾸떠낭 쓰밥 까우 알라꾸 (나 평안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 Q.T

7월8일(화)

성경

창세기 14:1-12

성경 뜻풀이

염해(3): '소금의 바다'란 뜻. 사해를 가리킨다.

말씀 속으로

제 십삼년에 배반한지라(4절): 이것은 최초의 연합군 전쟁인 싯딤 골짜기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즉 시날(고대 수메르) 연합군과 소돔왕의 연합군이 싸운 것이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소돔왕의 연합군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14년째에 연합군 전쟁이 일어났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 노략하여 갔더라(12절): 소돔왕 연합군은 그돌라오멜 왕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역습을 당해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돌라오멜군은 방어군이 사라지자 마음 놓고 염해 지역의 부자 마을들을 약탈했는데, 그 가운데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삶으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정작 그 결과는 내가 예상치 못한 것 또는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우연히 또는 운 나쁘게 일어난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롯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도 억울하게 전쟁의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모두 롯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즉 이 전쟁의 결과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롯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단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결과는 언제나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욕심을 따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선택 전에는 유익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1·5·3 Questions

1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5 나는 대학이나 직업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나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5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기도해요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해주세요.

7월9일(수)

성경

창세기 15:1~15:21

성경 뜻풀이

뭇별(5): 많은 별. 사체(11): 사람이나 짐승 따위의 죽은 몸뚱이. 화로(17): 숯불을 담는 그릇.

말씀 속으로

이 후에 …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1-4절): 아브람이라고 언제나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도 인간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었는데,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를 보여준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10-17절): 약속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 마주보게 해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계약 엄수에 대한 맹세와 아울러 계약을 위반할 때는 쪼개진 제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삶으로

아브람이 불안해했던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패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복수를 위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아직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서 아무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기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불안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아직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람의 마음은 그만큼 더욱 조급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내 생각과 내 때를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내용보다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아브람에게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불안하고 조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그분께 더욱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3 Questions

1 최근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점점 불안케 함으로 믿음을 흔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5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

기도해요

하나님, 환경과 진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7월10일(목)

성경

창세기 30:1~30:24

성경 뜻풀이

말씀 속으로

라헬이 …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1절): 라헬이 자식을 많이 낳은 언니 레아를 질투하는 것은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불신앙적 행동이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22절): 이는 창세기 8: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라는 구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이 홍수의 물을 줄어들게 하신 것이 노아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듯이, 지금 라헬이 야곱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삶으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지만 아들을 먼저 낳은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했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시녀 빌하를 통해 아들을 얻고야 맙니다. 당시 족장시대에서 모든 축복은 아들을 통해서만 상속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진 여인과 그렇지 못한 여인의 형편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때문에 라헬이 그토록 아들을 얻기 위해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헬의 모습은 예전에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야곱의 집착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힘으로 성취하고자 했고 결국 야곱의 가족을 불화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과 라헬 사이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종종 이러한 훈련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5·3 Questions

1 라헬과 레아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5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나요? 어떻게 해야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3 -

기도해요

하나님, 환경과 진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7월11일(금)

성경

창세기 32:13~32:32

성경 뜻풀이

-

말씀 속으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13절): 야곱은 자기의 선물을 '예물'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마음에 들도록 하는 선물'을 의미하는데, 야곱이 지금 자기 형에게 얼마나 은혜를 입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 단어는 '제의적 표현, 즉 제사를 위한 예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형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즉 에서에게 속죄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28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대신에 그의 이름을 바꾸신다. 이는 야곱에게서 새로운 인격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심으로써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삶으로

원망과 하소연의 기도를 마친 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먼저 예물을 보내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밤에 일어나 남은 가족들을 2차로 보냅니다. 참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 자꾸만 꼼수를 쓰다니 말입니다. 야곱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세상과 맞서는 자들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모두 앞서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인줄도 모르고 그와 씨름을 하다가 겨우 그가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행동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만큼 그에게 절박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에서와의 문제는 자기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 후 이곳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박함은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1·5·3 Questions

1 밤에 혼자 남아있던 야곱에게 생긴 일은 무엇이었나요?

5 내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나요? 이런 절박함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 -

기도해요

이 세상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절박함을 갖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 실천하게 해주세요.

7월12일(토)

성경

창세기 36:1~36:19

성경 뜻풀이

-

말씀 속으로

에서가 … 다른 곳으로 갔으니(6절): 에서가 가나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세일 땅으로 갔음을 가리킨다. 이는 한정된 땅에서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에서가 언약관계에서 이탈될 것이라는 이삭의 예언에 근거한다.
오홀리바마의 아들들(18절): 대부분의 족장들은 에서의 손자들이었는데, 유독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만이 족장의 명단에 올라 있다. 이것은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 보다 탁월하며 일찍부터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삶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 중 하나는 '일부일처' 즉,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의 중요한 원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의 원리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결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부일처가 아닌 다처였습니다. 물론 야곱도 다처였지만, 그는 속아서 두 번 결혼을 한 것이고, 또 자녀를 두기 위해 첩을 두었을 뿐입니다. 여하튼 이 후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방 백성이 됩니다.
십대 때부터 성경적인 바른 결혼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결혼하여 살다가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제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폭력이나 음주, 쇼핑중독 등 생각지도 못한 결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난 뒤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관을 가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그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3 Questions

1.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갈등이 일어날까요?
3. -

기도해요

세상이 어떤 가치관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결혼관과 연애관을 잘 배우고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7월13일(주일)

성경

창세기 37:12~37:24

성경 뜻풀이

말씀 속으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19절):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마음을 같이 했음을 암시한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은 형제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다.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23절):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또는 요셉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벗긴다는 것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의 입장과 이유를 나타낸다.
구덩이에 던지니 … 물이 없었더라(24절): 구덩이는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파 놓은 것으로 그 입구는 좁게 되었으나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넓고 크게 되어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름의 건조기가 되면 물이 말랐으므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삶으로

야곱은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를 알아오라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헤브론에서 100km쯤 떨어진 세겜까지 갔지만 그곳에 형들이 없자, 요셉은 30km쯤 떨어진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세겜에 다녀오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요셉은 참 성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순종으로 인해 이 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힘들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게으르시거나 나를 미워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면하는 사람은 결국 측량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3 Questions

1. 하나님이 요셉의 위기 현장에 나타나 요셉을 구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5. 혹 그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깨달아지는 일은 없나요?
3. -

기도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7월14일(월)

성경

창세기 39:11~39:23

성경 뜻풀이

말씀 속으로

히브리 사람을 …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14절): 보디발의 아내는 당시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 있던 애굽인들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요셉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었다.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매우 적대시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20절): 아내의 말대로라면 요셉은 애굽법에 따라 즉시 처형해도 무방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보디발은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 이는 그가 아내의 말에 의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그만큼 그가 요셉을 총애했거나 그도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삶으로

오늘 본문에서 잘생긴 요셉과 그런 요셉을 유혹하고자 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하면 죄 짓는 것을 들키지 않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 요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문화에서는 종이라면 주인이 얼마든지 성 노리개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런 문화를 핑계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런 문화와 죄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요셉은 큰 곤경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를 형통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며 오히려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기준은 남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문화를 비롯해 세상의 문화들에 대해 남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1·5·3 Questions

1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들키지 않는 것'의 당장의 차이와 나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5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3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바른 판단과 실천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7월15일(화)

성경

창세기 41:14~41:36

성경 뜻풀이

말씀 속으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14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염을 기른 반면, 애굽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고 항상 매끈하게 깎았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16절):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란 '평안을 주는 충분한 응답'이란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27절): 애굽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기 때문에 7년간의 긴 흉년은 흔하지 않았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32절): 하나님의 계시는 종종 강조를 위해서 반복된다.

삶으로

당시 바로의 꿈은 '신들이 알려주는 계시'로 믿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만 풀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보이시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에게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목숨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1·5·3 Questions

1. 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했을까요?
5.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3. -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7월16일(수)

성경

창세기 42:1~42:17

성경 뜻풀이

말씀 속으로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1절): 야곱의 가족들은 큰 기근이 닥쳐 어려움에 처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요셉은 그 형들은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8절): 요셉은 17세 때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왔고, 지금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비단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라기보다,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인의 옷을 입고(수염도 깎고) 통역을 통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이 … 꾼 꿈을 생각하고(9절): 요셉은 13년 동안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이 꿈을 자연히 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 그 꿈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10절): 당시 가장 엄중한 맹세는 통치하는 왕이나 말하는 사람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었다.

삶으로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앞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롬 5:8). 뿐만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감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3 Questions

1 요셉이 꾼 꿈을 떠올렸을 때 자신의 형들을 보고 정탐꾼이라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나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기도해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7월17일(목)

성경

창세기 45:16~45:28

성경 뜻풀이

말씀 속으로

바로는 … 명령하기를(17절): 야곱 일가의 초청은 요셉 개인의 차원을 넘어 애굽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는 그들을 애굽의 국빈으로 대우하며 초청하고 있다.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18절):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을 보여준다(창 27:28 참조).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24절):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애굽으로의 귀환이 지체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28절): '이스라엘'의 이름은 승리를 내포한다. 곧, 오랫동안 요셉의 문제로 극도의 비관에 잠겨있었던 야곱이 이제 승리의 기쁨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삶으로

요셉이 형들과 만난 사건이 애굽의 바로에게 들렸습니다. 이에 바로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서, 애굽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초청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왕들처럼 야곱의 가족을 국빈으로 대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엄청난 흉년 속에서도 양식을 얻고,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 가족의 구원을 위해 바로까지도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속의 결과만이 아니라, 약속의 모든 과정, 모든 세밀한 부분에까지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구원을 위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라와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1·5·3 Questions

1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국빈 대접을 받으며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오늘도 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기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 비전트립 간증

김신권 목사

6년간 섬겼던 광주은성교회에서 부산 남천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은혜가 넘쳤던 2014년 대학청년부 비전트립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고서를 마무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학청년부에서 청년들이 해외 선교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쉽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트립을 기획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기선교와 비전트립을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은 있었지만, 비전트립을 기획하여 팀을 인솔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단기선교나 비전트립을 나가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웃을 구제하는게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짧은 기간 선교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선교지에 가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올 수는 없습니다. 선교지를 어지럽히지 않고 돌아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얻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오지임에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또한 현지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임도 느끼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면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지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비전트립은 현지 선교사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동부, 서부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곳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 많은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트립팀이 오게 되면, 함께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트립팀은 꼭 현지 선교사님의 지도 아래 움직이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헤 성도님들이 후원해주신 장난감, 약품들, 생필품 등을 전달하면서 선교에 동참해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성교회를 통해 선교지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글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원주민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너무나 미안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례도 거절하시면서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팀으로써는 처음 들어갔던 원주민 교회가 여러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로부터 정말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동행하시면서 선교지 곳곳에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신 이성진 목사님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온전히 일정 준비와 팀원들 케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함께 한 팀원들과 선교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 귀국한 후, 김다영 자매와 최우성 형제가 고열, 복통으로 잠깐 근심하게 했으나 곧 건강을 찾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에 수차례 비행기를 갈아타고, 매일같이 정글 사이를 이동했던 고된 일정을 은혜가운데 기쁨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전트립을 허락해주신 안점수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들, 대학청년부 부장으로써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선배 장로님과 박은선 집사님, 엄청난 양의 약품을 지원해주신 김선영 집사님,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주신 당회원, 전도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대학청년부 비전트립에 참여하여 함께 사역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목사

뜨리마 까시 뚜한! (*편집자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4년 여름 광주은성교회 청년대학부들과 함께 한 말레이시아 비전트립(7월 8일 -18일)은 팀원들 모두에게도 그렇겠지만, 제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청년대학부 사업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어 팀이 짜여져 준비되는 도중, 출발하기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 저는 아슬아슬하게 끼어들 수 있었고 현지에서도 진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신권 강도사님의 많은 기도와 준비에 현지일정을 가이드해주신 OTM선교회 정OO(윤OO) 선교사님의 수고와 섬김이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주민교회들의 저녁집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서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비전트립에 참여하기로 결정된 뒤 했던 것들 중 하나는 그곳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책을 사서 독파하고 인터넷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여러 상황들을 알아가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겠지만, 이 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레이반도의 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 위쪽의 동말레이시아가 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고, 13개주의 주지사와 9명의 술탄들이 5년에 한번씩 왕을 선출하는 연방제 입헌군주국가.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한다고 하면서 무슬림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 인구 2,800만명 중 반은 말레이계로 그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중국계(25%)와 인도계(8%)외에 100여개의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 의무병제로 10만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만 17세 남녀 중 20% 정도만이 추첨을 통해 3개월만 복무하는 나라. 석유와 천연가스에 식용기름(팜유) 세계생산 46%를 자랑하는 자원부국. 쌍둥이빌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452m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있는 현대적 도시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나무판으로 지은 집들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 포르투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며 복음을 들었겠지만 전체인구 60%가 무슬림인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열흘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사전에 일정표를 받아들고 대략의 상황을 짐작했었지만, 현지에서의 경험은 '백문이 불여일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홍콩을 경유하여 도착한 쿠알라 룸프르,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이제 3시간을 달려가야 한다고...그렇게 도착한 곳이 말레이시아 제3의 도시 이뽀. 그곳에 마련된 OTM선교회의 선교관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빽빽한 팜나무 농장을 지나 방문한 첫 번째 마을은 숭아이 가삐스. 조그맣게 지어진 교회 옆 공간에서 시작할 소망 선교원(루마 하라빤)을 위한 환경미화 - 페인트칠과 벽화작업이 이루어졌고, 동네아이들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현지인 목회자인 바우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집에 나누어 자고, 먹고...동남아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과일, 열대과일의 왕자 두리안도 양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까칠한 가시로 덮인 껍질속의 요상한 자태의 그 녀석을 집어서 먹는 순간 '이게 뭐지?' 슈크림 먹는 느낌? 그 안에 감취인 엄청난 크기의 씨로 인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지만, 꽤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냄새가 난다는 소문은 이해 할 수 없었는데, 곳곳에 두리안 반입금지 표지가 있는 걸 보면 과일이 오래되면 강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녁집회에서 청년들은 준비한 워십댄스와 드라마로 복음을 전하였고, 저는 목사(파스터 리)라는 이유로 청년대학부 담당이자 이번 비전트립의 인솔자인 김신권 강도사님보다 먼저 설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누구(내 아내나, 엄마나, 친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야 한다는 메시지로 강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착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복음제시 할 때 주로 쓰는 이야기인

데, 미술을 전공하는 사촌동생이 그려준 삽화들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이번 비전트립 일정 중 이 두 이야기는 숭아이 가삐스, 버르땀, 은치압, 문구사와 그리고 쿠칭의 교회 등에서 다섯 번에 걸쳐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단순하고 명쾌한 메시지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회자들(데이비드 목사님 등)도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용하기를 원해서 삽화를 복사해주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의 반 이상이 말레이계이고 무슬림들인데, 이들에 대한 복음사역은 너무 강한 장애가 있어 대부분의 복음사역은 중국계와 인도계 그리고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해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세대를 복음 안에서 키워낼 선교원 사역을 통해 이 일의 확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마을들을 찾아가는 길목이었던 카멜론 하일랜드는 고온다습한 동남아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은 곳이었습니다. 고랭지 채소와 과일들을 키우는 우리나라 대관령날씨의 이곳엔 엄청난 규모의 차밭(아니 차산)이 있었습니다. 그곳 버르땀교회에서는 1일 어린이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저녁에 잠잘 때에는 긴팔옷, 긴바지에 이불과 침낭으로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른 바뚜 슴빌란에서도 아이들과 교제하고 섬겼는데, 그곳 주민들이 두리안과 람부탄 그리고 망고스틴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망고스틴은 열대과일의 여왕이란 별명이 무색하지 않는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계곡의 폭포수. 굉장한 규모의 폭포였음에도 아직은 소수의 사람들만 찾아오는 곳인 듯 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관광이나 여행은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이스캠프인 OTM선교관으로 돌아와 빨래와 휴식 그리고 쿠알라 룸프로 이동하여 트윈타워와 도시구경. 헌데 이슬람교인들의 금식기간인 라마단기간에, 선교사님(허 현)의 차량하나에 이상이 생겨 쿠알라 룸프르 구경은 간단히 끝내고 차이나타운에서 저녁식사 그리고 심야버스를 타고 싱가포르로 이동. 자다 깨서 출입국신고하고...지하철 운행시간까지 지하철역에서 노숙 아닌 노숙. 지하철로 예약해둔 헤리티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간단한 세면 후 시티 하베스트교회로 출발~

20~30대 교인들로 3만명에 이른다는 시티 하베스트교회. 건물 내부를 한참 돌아 인도를 받아 들어선 곳의 처음 광경은 엄청난 규모의 무대와 조명 가운데 강렬한 사운드의 찬양시간이었습니다.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두 손을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광경은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콩히 목사님의 설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우리를 보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대전면을 사용하여 영상자료를 보여주었는데, 복음을 들어야 할 여러 나라들과 그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소개되었고 그 첫번째가 북한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보내심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찬양으로 불려졌습니다. 복음초청시간에는 백 여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아가 영접기도를 하며 환영받았고, 우리는 처음 참석한 이들로 따로 인도되어 설교CD등을 선물받으며 간단한 교회소개를 받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시간엔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과 싱가포르 도심 구경.

게스트하우스에서의 1박 후 비행기를 타고 동말레이시아의 쿠칭으로 이동. 그곳 현지교단인 SIB의 노회장격인 트람 목사님과 데이비드 목사님과 함께 이반족 롱하우스들을 찾아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롱보트를 타고 마을들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강들의 물이 말라 보트로 가는 게 여의치 않아, 판투에서 4륜구동차량들로 바꿔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은치압, 까라, 문구사와, 스마와 마을들이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롱하우스에 모여 사는 공동체들. 우리가 섬기러 간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곳 주민들이 우리를 손님으로 대접하며 음식과 숙식 공간들을 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방울이 땡글땡글하고 순박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감사할 수 있었고, 준비해간 약품들을 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파인애플 밭에 가서 원하는 데로 하나씩 따가도록 해주어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현지 마지막 집회는 트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쿠칭의 교회로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의 수요예배였습니다. 트람 목사님은 신학생들도 훈련하고 계셨고, 주의원으로 활동하는 이가 평

신도 대표로 환영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준비한 모든 워십댄스와 드라마, 매직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한참을 한데 어울려 기념사진을 찍으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1박을 하고 쿠알라 룸프로 날아가 다시 홍콩으로 날아 말레이시아 일정을 끝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남은 오후시간을 활용해 홍콩관광에 나섰지만,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심포니 오브 라이트'마저 취소되고 부랴부랴 공항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해선 알 수 없는 것들을 몸으로 겪어 보았고 다음번엔 더 제대로 할 수 있겠단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비전트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로 마음으로 수고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뚜한 믐브르까띠 안다! (*편집자 주: God bless you)

박지영 자매

저는 비전트립을 떠나기전 재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어려워서 정말 갈수있을지 기대보다는 걱정스런운 마음으로기도하며 비전트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체험하며 비전트립을 가게되었습니다.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할때에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만가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할 수있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해외로 가게된다는 설렘과 그곳에서의 보여주실 많은 것들에대한 기대, 그리고 왠지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첫 선교지였던 숭아이갑삐스 에 도착하여서 문화사역과 2달간 준비했던 워십과무언극 등을 보여드리고 난 뒤 이성진 목사님의 설교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전 다같이 서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 조그만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평생 잊을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눈물흘리며 기도하고 손을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는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있었구나`하는 생각에 정말 죄송스럽고 반성하게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다시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들을 옮겨다니며 사역하고 말씀전하면서 10일간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힘든 일정 중에서도 고생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만큼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팀원들 다 예민하고 힘들었을텐데 힘든 내색 전혀안하고 서로 다독이며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 이 귀한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한국에 있을 청년대학부 지체들도 너무 보고싶었습니다. 저희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생많이하신 정OO 선교사님과 허훈선교사님, 말씀준비와 저희를 인솔하여주신 이성진목사님. 비전트립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여주신 김신권 강도사님. 10일간 같이 살맞대고 고생한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다시한번 비전트립을 가게된다면 꼭 다같이 가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성 형제

가장 먼저 이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무사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 제게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을 먹으며 타국으로 간다는 설렘과 원주민 마을에서의 사역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99%가 이슬람이며 정부관할 교육기관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이슬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 자체가 이슬람으로 뒤덮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키

우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갔던 '숭아이갑삐스'라는 마을에서의 사역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도 하고 페이스패인팅도 하고 서로 이름도 물어보며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곳에 있는 남자 아이들과는 축구선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친해질 정도로 그 친구들은 축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저녁예배를 드리는데 제게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예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주민 마을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역시 드럼과 기타를 치며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은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순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경청하는 모습은 오히려 예배드릴 때 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반성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성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던 중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라고 말씀 하실때에 정말 평소에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던 것이지만 정말 그 순간 그 말씀은 나의 영안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 있던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타지인,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이번 비전트립은 '선교'라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 이였습니다. 흔히 선교라 하면 '문화와 언어, 피부색 등이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도중 선교에 관한 비전과 꿈은 있지만 실상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꼭 타지를 나가야 하는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타지로 나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중보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도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기도와 물질로 중보하며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교나 비전트립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했던 사역들은 선교사님들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되는 사역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내어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대학청년부 비전트립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란희 자매 (주일 오후예배 비전트립 선교보고 시간에 대표 간증)

슬라맛 소레 (오후인사) 슬라맛 소레는 말레이시아에서 오후에 인사하는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대학부 정란희입니다.
우선 저희 비전 트립팀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저희 팀원들 모두가 비전트립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비전트립을 준비했었던 과정들과 또한 비전트립 기간 동안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 오갈 곳 없는 아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품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열방으로 나아가 세계 모든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작년 12월 겨울...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한 임원회의 때 청년대학부도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 기도응답이라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과는 달리 월차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반을 비웠을 경우 대체 교사도 필요하였고 믿음 없으신 학부모님들의 눈초리도 걱정이 되었을 뿐 더러..
원장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12월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어느덧 2014년 4월 ... 비전트립 팀원 모집 마감이 되기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원장선생님 얼굴을 뵙고 말씀 드리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어 장문의 편지를 써서 금요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원장선생님께서 주말동안 고민해 보시고 월요일에 말씀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이러한 저의 상황들을 팀원들과 강도사님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하였을 때 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4개월 정도 가량 걱정하고 고민하였던 것이 무색할 만큼 흔쾌히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원장선생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 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건 원장선생님과 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음에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대체 교사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나누고 계획해 보자고 말씀해 주시는 원장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아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생님께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 저희 원에서 실습하게 되셨는데 결혼 하신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주라 고민 좀 해 보시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희 원의 모든 선생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인지 몇 일 뒤 실습 선생님께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섬겨주시겠노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육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자도 한명을 더 저희 반에 보내주셨고 제가 반을 비웠을 때에 두 명의 선생님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 너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필요를 알고 있었노라...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걱정하고 염려하였었던 저의 마음을 눈 녹 듯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비전트립을 가기 전부터 제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러한 이끄심에 비전트립이 기대가 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 모이기에 힘써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7월 7일 저녁 11시 20분 교회에서 모여 터미널로 향한 뒤 12시 30분 경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쿠알라룸프로 도착하기 전 까지 많은 이동시간을 거친 뒤 안전하게 이동하여 8일 오후 4시 50분 경 쿠알라룸프에 도착하여 정OO 선교사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 OTM선교관에 도착하여 선교사님부부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전트립 일정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셨던 곳은 처음 방문한 숭아이가삐스라는 원주민 마을이었습니다. 9일 아침 저희들은 아침식사를 마친 뒤 오전 10시 40분 경 숭아이가삐스라는 원주민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성하게 자라있는 나무와 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곤충들과 새들의 지저귐.. 사람들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아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 저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세계라는...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가족을 만난 것 마냥 저희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맛있는 음식들과 차와 과자로 저희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숭아이가삐스에의 저희들이 처음 맡은 사역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교회 옆 유치원으로 사용할 곳 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 이었습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부족하지만 함께 협력하여 벽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벽화를 그리는 중 학교에서 하나 둘 아이들이 돌아왔고 저희들을 보며 신기한 듯 수줍게 웃는 아이들, 장난을 치는 아이들,
완성한 벽화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쳐다보는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천사들을 만난 것 마냥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자 많은 수 가 모여 준비해 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비눗방울놀이 등 어린이 사역들을 하였고 처음 접해보는 많은 것들에 좋아하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 팀원들 모두가 이마에서 콧등에서 줄줄 흘러 내리를 땀방울도 느끼지 못한 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집회시간…
덥고 땀나고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밖에서는 개와 닭이 짖는 예배당… 그러함에도..
작은 손을 높여들며 찬양하는 아이들…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원주민 사람들…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이들보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이들보다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었던 나의 모습에 반성하게 되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거듭 반복했었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도착한 원주민 마을 숭아이가삐스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어 그동안의 나의 잘못된 행실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거짓말처럼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더워서 땀이 나도… 수십명 모여 있는 이 공간에 천장에 선풍기 하나밖에 없어도…그토록 싫어하는 벌레들이 날아다녀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준비한 워십과 무언극을 전한 뒤 이성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성진 목사님의 설교 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말씀에 또 한번 눈물이 울컥하였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한 형제이고 가족임을…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이토록 많은 형제들을 주심에… 나에게 이토록 깨끗하고 순수한 가족들을 주심에…

지금도 두 눈을 감고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선한 눈망울을 생각하면 더 잘해주지 못함에 미안하고 더 안아주지 못함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을 기대하게 하셨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만난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한 형제임에 더욱 감사가 되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준비해 주신 수박과 차를 마시며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숭아이가삐스에서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날 10일 아침 어제 완성한 벽화가 그려진 소망의 집에 팀원들과 그리고 정OO 선교사님과 함께 간판을 함께 달며 그곳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후로 저희들은 여러 교회와 원주민 마을에 가서 함께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여러 원주민 마을의 교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목회자가 없어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운 곳도 있었습니다.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변화 된게 있다면 막연히 포괄적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그곳에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며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는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섬김 없이는 감당하시기에 너무나 힘든 사역이겠구나…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한명 한명이 주러갔는데 오히려 받고 왔으며, 씻어주러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씻겨져 왔으며 고쳐주러 갔을 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치료되어져 돌아왔습니다.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왔으며, 꿈을 가지고 들어가 꿈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러 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 왔으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더 큰 사랑 주지 못함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팀원들의 마음이 이러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갔다 그저 오는 그러한 비전트립이 아닌 계속적으로 말리이지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지정한 미얀마와 다른 여러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생각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두 손이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힘들어 지쳐 울고 있는 저들과 함께 아파하며 울 수 있는 마음 ..저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낮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영 자매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에 저는 뭔가 당연하게 가야한다고 느꼈고 또 재정적인 부분을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받아서 인지 정말 꼭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을 외운다거나 하지 않았고 어른 사역도 아닌 아이들 사역이여서 심적인 부담도 없었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선교라는 중압감보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트립"으로 생각되어서 내가 비전트립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 도 조금 했습니다. 무언극도 좀 더 잘하고 좀 더 리얼하게 하고 싶은데 생가처럼 따라와 주지 못해서 짜증도 나고 답답해서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잘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다가오면서 기도회도 가지고 주일날 몇 주에 걸쳐서 엄마가 비전트립시 주의사항과 가슴에 품어야 할 것 등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불만들과 불안함을 내려놓게 됐고 점점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에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은 주일날 잠깐씩 만나던 교회 지체들과 10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할 텐데 서로 어긋나지 않고 팀으로 단결력이 있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싶었고 또 한국에서는 의지할 곳이 많지만 다른 나라, 오지로 떠나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뿐 이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온다는 간증을 저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비전트립이 시작되고
비전트립 기간 동안 선교지와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좋았던 점은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 새로운 곳 오지에 오게 되어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야생의 자연을 보게 된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이미정OO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셔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마을들을 가게 되어 현지인에게 배척당하는 어려움이 없어서 매우 편한 생활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쉬웠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작고도 작은 부분만을 하고 가는구나 하고 느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또 미리 짜갔던 일정 중 몇 개가 취소되고 금방 다른 일정으로 채워져서 비전트립이 이렇게 유연하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인지 약간의 의문감도 생겼었고 그만큼 여유롭고 널널 하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기 전에는 엄청 타이트하고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충전되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노는 시간도 많고 해서 몸은 편했지만 약간 성에 차지 않는?ㅎㅎ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동시간이 너무 많아서 마을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첫 원주민 마을로 갈 때 원주민 마을이라고 해서 약간 쫄았었는데 다들 착하고 아이들도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서 그 마을에서 큰 힘과 자신감을 얻어서 좋았습니다.
원주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반응과 표정 등을 보고 느끼고 싶었지만 거의 항상 맨 앞에 앉다 보니 그런걸 보지 못해서 아쉬웠고 모든 교회를 갈 때마다 부르던 "할렐루야 호~!" 찬양도 준비했더라면 같이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개의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정말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생활한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꿈만 같기도 하고,, 유명하고 좋은 곳으로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비전트립을 갔다 온 후에 생긴 기도들은 이슬람이 말레이시아 정부를 장악해서 정부차원에서 수천수만 명의 이슬람 교사를 파견해서 순진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교도로 키운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지역마저 넘어가면 완전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정말 마지막세력을 엄청나게 휘두르고 있구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작고 선교사님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극명해서 안타까웠다. 이런 이슬람지역과 다른 지역을 위해 온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로 뭉쳐도 힘들 판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믿는다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나를 포함한 지금 세대들, 이단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절망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 하나로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나가실지 또 절망이 희망과 웃음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기대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트립 마지막 날 가졌던 피드백 시간이 참 좋았고 다음 비전트립 때는 좀 더 자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효로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조효로입니다.
우선 이번 대학부 비젼트립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비젼트립을 준비하고 모집하고 있을때 그냥 막연히 가고싶다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젼트립을 놓치게 되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서 많은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다 제쳐두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초등부에서 필리핀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온게 너무나도 좋은 기억들, 추억들로 남아있어서 더욱더 이번 비젼트립이 기다려졌고 또한 그곳에서 받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비젼트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도우기 위해 알바를 하다보니 비젼트립을 위해 팀원들이 모두 모여 선교지의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우며 그 곳에서 우리가 사역할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는 모임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준비가 부족한 내가 그 곳에 가서 열심히 준비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이번 비젼트립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팀원들이 잘 이해 해주고 잘 이끌어주어서 늦게나마 비젼트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걱정되었던 재정적인 문제나 걸림돌이였던 여러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었고,
저의 기도제목 중 한가지가 비젼트립을 떠나는 날 극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우린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고 비젼트립을 갈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 처음 사역지는 수나이 가삐쓰라는 원주민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이라서 모든게 신기하고 낯설고 어떻게 먼저 다가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간 첫 번째 사역지였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할 만큼 너무 우릴 반가워해주고 먼저 인사해주는 원주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귀엽고 장난 가득한 아이들... 지금도 그 마을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수나이 가삐쓰에서 우린 교회 옆에 세워진 유치원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녁집회 때, 많은 마을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

님만을 위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나이 가삐쓰라는 이 마을에 주님의 복음이 임해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마을사람들...
어쩌면 살기편한 대한민국에서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된 나에겐 없는 정말 주님만 잡고 매달리는 간절함이 그 마을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 제 믿음이 또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주님의 교회를 손수 지으며 많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꿋꿋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수나이 가삐쓰 마을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된 것 같습니다.
준비해간 워십과 무언극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라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젼트립 기간 동안 많은 나라 많은 마을 다니며 가는 곳곳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항상 선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남일처럼 느껴왔던 제게 다른 나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갔던 그 나라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졌지만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너무나도 짧게 끝이 나버렸지만 비젼트립을 통하여 품은 이 나라와 이 기도제목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겠다고 다짐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미정 자매

1. 비전트립을떠나기전 기대
처음으로 가는 비전트립이에서 설램반 기대반이 있었다.. 과연내가 사역을 잘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되기도 하였다. 막상 날짜가 조금씩 다가오면서 적응을 잘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되었다. 대학청년부 예배 나가면서 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워십연습 무언극 연습도 열심히 하고 컨티션 조절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정말 꿈꾸고 있었던 단기선교 였기 때문이다. 한번쯤은 사역이라는거 꿈꾸고 있었는데 막상 떠날려니깐 기대가 되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꺼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늘 주님께 기도 하면서 지냈던것 같다.

2. 비전트립기간 동안 선교지와 여러나라/지역을 돌아보며/좋았던점/깨달은점/느낀점
비전트립기간 동안 원주민 마을을 돌면서 처음으로 이런곳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원주민 마을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지 걱정도 되기도 하였다
막상 선교지를 돌면서 많은것을 보고 느낀것 같다.

좋은점: 선교지에서 원주민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우리를 낯설어 했는데 친해지면서 아이들이 참 웃는모습이나 따뜻하게 대해준거 같아서 마음이 편했다 나도 과연 선교사역을 하면서 과연 저렇게 아이들과 친해질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깨달은점: 선교지에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걸 많이 느끼고 선교사님 또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차근 차근 배우는것도 느꼈다 나중에 나도 나가서 선교사역을 잘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그래도 언어나 소통이 되지는 않았지만 원주민 아이들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준것에 대해서 많은것을 느낀다.

느낀점 : 한국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교회를 방황했을때도 나를 놓치 않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이제 앞으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 않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비전트립을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앞으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들고 지칠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수를 내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들도 사랑하고 미워했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미워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한번 단기선교를 꼭 참여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혜인 자매

저는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꼭 내가 갈 것이다.'라는 간절한 다짐도 없었고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가는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비전트립을 갈지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연히 교회로 가는 비전트립을 가라고 고민하던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 말에 힘을 얻어 저는 강도사님께 비전트립을 간다고는 했지만 역시나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 단정 지으며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비전트립에 관심이 없거나 안 가본 학생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생각일 텐데 '아... 내가 방학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갈 돈도 없고 심지어는 학기중 시험기간에도 나와 모임에 참석해서 연습해야 하고.. 만만치 않겠는걸!' 이런 생각... 저 역시 한 번도안 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비전트립에 무관심했던 제가 모일 때마다 점점 모이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늘 기쁜 마음으로 팀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 팀을 위해 잠깐씩 기도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저에게 일상 동안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모임을 이끌어 주셨던 강도사님과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하나라도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져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치고 떠나기 위해 팀원들과 교회에 모일 땐 결국 '좀 더 준비할걸, 좀 더 모일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렌 마음과 함께 후회되는 마음 때문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비행기와 차를 타고 드디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고 여러 원주민 마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갔던 선교지는 말레이시아인이 아닌 이반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모든 사역지들은 기대 이상으로 하늘도 맑고 온 사방이 인간의 손을 데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늘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엄청난 접대를 해주시는 원주민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녁마다 저희가 준비한 집회를 진행했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저희들이 준비한 워십과 무언극을 할 때에 열심히 우리들을 경청해주고 관심 가져 주는 그들을 보며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국에서 매우 편하게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예배드렸던 순간순간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에 다섯 명의 선교사님밖에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 각각 세워진 귀한 교회를 둘러보며 정말로 그 교회들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앞으로 저희 청년들이 한국에서 밀집되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전트립 일정 중 싱가포르에 방문했을 때 City Harvest Church라는 아주 큰 교회를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설렌 마음을 갖고 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이 영어였고 한국 교회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전혀 색다른 분위기인 그 교회는 열정적으로 두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 등등 너무나 가지각색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열기가 저의 온몸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저희와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영어로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들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설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니 갑자기 흥미롭게 들리기 시작했고 듣고 보니 강단에 세계신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마침 비전트립을 온 저희들에게 우연치 않게 선교에 대한 설교를 말씀해주셨고 설교가 끝나고 불렀던 찬양은 선교를 나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전 그 예배를 들이면서 여기에 온 비전트립 팀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세계는 넓고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선교를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척 중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고 저의 언니가 선교에 관련된 학과였어도 이번만큼 선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짧은 비전트립이었지만 저에겐 큰 영향력을 주었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 저의 믿음이 한 발짝 보다 더 큰 성장을 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짊어질 미래를 위해 그리고 큰 그릇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각 준비된 때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완 형제

Terimakashi Tuhan! (*편집자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박 11일의 짧고도 긴 비전트립을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부가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출발 하기 전부터 마치기 까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출발 전 성도님들께 받았던 지원들,여행 중 현지 원주민 분들께서 제공해주신 최상의(?) 숙식, 현지 선교사님들의 아낌없는 지원등등.. 무엇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는 원주민 마을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선교사님들의 선교활동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어 선교사님들의 선교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글 깊숙이 위치한 말레이시아 곳곳의 원주민 마을들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저희가 방문한 여러 마을들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 현지인들이 매주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원주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벽화를 그리고, 일일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워십댄스, 무언극 등을 하였으나 그 중 가장 값진 사역은 바로 이런 분들께 이성진 목사님과 정OO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재정만 지원해드리면 나도 그 분들과 동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발길이 드문 정글 깊숙한 곳 까지 찾아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귀한 섬김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자만하고 부끄러운 것 이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일 간의 서 말레이시아 일정이 끝나고 동 말레이시아로 건너가기 전 우리 일행은 싱가폴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마침 주일이라 저희는 싱가폴에서 가장 큰 교회인 City harvest church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만 여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교회 답게 그 분위기는 콘서트홀을 방불케 하는 아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날 담임 목사님이신 Kong Hee 목사님은 마침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선 "보내시는 하나님" 이라시며 하나님께선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보내셨으며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신다는 목사님의 설교는 저희에게 큰 도전과 동시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싱가폴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동 말레이시아로 건너온 우리 일행은 말레이시아 현지 목사님이신 Tram 목사님과 합류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선 저희와 함께 동행하신 정OO 선교사님과 동역하시는 분이셨는데,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 나라에서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로 일구신 후 다른 개척교회를 세우신,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Tram 목사님과 동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선 영적으로 척박한 이 말레이시아 땅을 아직 져버리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365일이 후덥지근한 이 곳 말레이시아,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영적 전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루 빨리 이슬람 정부가 물러가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이 땅의 크리스쳔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공보영 자매

이번 비전트립을 다녀오기 전까지 '선교'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학교친구들이 CCC에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고 하면, 좋은 경험이었겠구나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청년부에서 비전트립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전과는 다르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한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였고, 과연 비전트립을 가서 그 곳의 상황들과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 고민하였지만, 이 비전트립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가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했던 걱정과는 달리, 매 주 토요일 마다 모임을 가지고 다른 팀원분들과 함께 비전트립 가서 할 워십과 무언극, 페이스 페인팅 등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나를 이 비전트립의 한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비전트립을 가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SFC대학생대회에서 선교에 대한 강의와 박영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집사님들의 배웅 속에 새벽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홍콩을 경유하여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 정OO 선교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오티엠 선교관이 있는 이포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저녁과 과일을 먹고, 오티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선교관에서 두시간 정도 떨어져있는 숭아이 가삐스라는 마을에서 첫 사역을 하였습니다.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낯선 환경에 살짝 긴장이 되었지만, 유치원으로 쓸 곳에 벽화를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계곡에서 같이 놀자고 하고, 조그만 달팽이와 꽃잎 하나에도 신나하는 그 곳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집회 할 때 저보다 더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숭아이 가삐스 마을 다음으로 간 버르땀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마을 아이들은 어느 정도 영어도 할 줄 알았고 K-pop도 많이 알고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 찬양보다는 K-pop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바뚜 교회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찬양도 부르고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베풀어주신 맛있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동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동한 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이슬람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곳의 원주민 분들은 계속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과, 항상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섬기로 간 우리에게 오히려 넘치도록 베풀어주신 그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이동이 잦은 일정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비전트립 사진들

말레이시아 이뽀 선교관

선교지에 전달될 물품, 약품, 아이들 장난감

숭아이가삐스 선교유치원 개원을 위해 청년부가 선물한 벽화

버르땀 교회

바투셈빌란 교회

다시 이뽀 선교관으로

이뽀 선교관 출발

쿠알라룸푸르 차이나타운 (싱가폴행 버스 정류장)

싱가폴 City Harvest Church

콩히 담임목사님의 메시지 - "보내시는 하나님"

주일예배에 참석한 수만명의 싱가폴 젊은이들

친절했던 City Harvest Church 새가족부

그 유명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Under World 관람전. 블록버스터가 눈 앞에 펼쳐졌다.

은치압 마을

황송했던 원주민 성도들의 섬김. 음식도 입맛에 잘 맞았다.

워십 "Choice"를 통한 복음 제시

마을의 가정들을 위한 기도

은치압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뭉구사와 마을

뭉구사와에서 파인애플 수확

쿠칭 지역 (고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성진 목사님의 그림 예화를 이용한 복음 제시

사역을 마친 후 쿠칭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국 돌아오는 길 홍콩 경유.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아 'Symphony of Light' 쇼는 보지 못했다

스타의 거리에서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오실 때까지 계속~